

클래식 스타들의 고품격 선율, 광주 적신다

클래식 스타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는다.

'노부스 콰르텟'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음악회 'Slavic'을 개최한다.

노부스 콰르텟 10번째 정기연주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드보르작, 야나체크, 스메타나 등 체코의 대표 클래식 음악가들의 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날은 먼저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 제7번'으로 문을 연다. 이어 야나체크의 '현악사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무대에 올리고, 스메타나의 '현악사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연주를 선보인다.

지난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솔리스트들이 모여 결성한 '노부스 콰르텟'은 바이올린 김재영·김영욱, 비올라 김규현, 첼로 문용휘로 구성된 팀으로, 아르디티 콰르텟, 벨체아 콰르텟, 아르테미스 콰르텟 등이 소속돼 있는 독일 현악사중주 에이전시 '지멘아우어'에 소속된 유일한 동양인 아티스트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원 음악상 신인상, 예술의전당 실내악부문 최우수상 등을 받고 지난해 제11회 공연예술경영상 '올해의 공연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일반 5만원, 학생 4만원.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광주여성필)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광주여성필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로 기획된 이날 공연은 김정원과 함께 박승유 지휘자를 초청해 무대에 올린다. 레퍼토리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교향곡 제5번' 전곡이다.

김정원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수석입학·졸업,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을 거쳐 동아음악콩쿠르, 엘레나 톰브로 스테파노프 피아노 콩쿠르, 비젠도르프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런던 심포니, 빈 심포니, 체코 필하모닉 등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바르샤바 쇼팽 페스티벌, 스위스 베르시에 페스티벌 등 유럽 음악제에서 솔리스트로 참여했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노부스 콰르텟'

'정한빈 피아노 리사이틀' 22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정원, 광주여성필과 24일 음악회
노부스 콰르텟 'Slavic' 27일 금호아트홀

스 베르시에 페스티벌 등 유럽 음악제에서 솔리스트로 참여했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피아니스트 정한빈도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24일 오후 2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무대를 연다. 작곡가 류재준이 선정한 연주자로 무대를 꾸미는 '오푸스 비르투오소' 시리즈로 개최되는 이날 공연은 바흐의 '칸타타-양들은 평온하게 풀을 뜯으리'를 자체 편곡한 버전으로 선보이며 막을 올린다. 이어 베토벤의 '소나타 제23번 열정', 스크리아인의 '환상 소나타', 리스트의 '소나타' 등을 무대에 올린다.

정한빈은 예원, 서울예고를 빛낸 음악인상, 한예중을 빛낸 음악



김정원

정한빈

인에게 수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부산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아나마토 국제피아노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석 2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오픈스튜디오·전시회

19일 '토크 전시비전' ... 24일까지 개인전



B.Ajay Sharma 작 'Paradigm Of Presence'

'근대문화의 보고(寶庫)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에 문을 연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국내외 다원 분야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윤세영, 설박, 이조흠, 최순임 등 광주 지역 4명의 작가와 인도출신 퍼포먼스 작가 B.Ajay Sharma가 입주작가로 활동중이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오픈 스튜디오와 전시회가 열린다. 19일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호랑가시나무가 매달 한차례씩 진행해온 '토크 전시비전(Talking Exhibition)' 행사가 열린다. 토크 전시비전은 예술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 아이디어 등을 담론으로 풀어내는 '말로 하는 개념 전시회'로 이날은 '예술의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또 다양한 시청각적 이미지와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창작 작업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상영프로그램으로 'HCS시네클럽'에서는 유명 철씨의 진행으로 피터 잭슨 감독의 '데드 얼라이브'를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작가들의 개인전도 함께 열린다. 24일까지 창작소 지하에서 열리는 B.Ajay Sharma의 개인전 'Paradigm Of Presence'에서는 작가가 마주한 공간과 현재를 인식하는 과정을 담은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중국 단둥 출신 송검남(Song Jianan)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Memory Format'도 오는 26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강렬한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을 소재로 'Foreign Objects' 시리즈와 'Memory' 시리즈를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1일 '의재, 산이 되다' 전 강연회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9호남미술 아카이브 '의재 齋, 산이 되다' 전(10월31일까지)과 연계한 특별강연회가 21일 오후 3시 열린다.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 이 관장은 스승 의재를 향한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충실한 제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재 허백련의 민족사상과 사회운동, 가르침의 방법 등을 알리지 않는 일화와 함께 소개한다.

또 1930~1960년대에 걸쳐 의재를 구심점으로 퍼져나간 광주 문인들의 풍류와 인문학적 아취, 민족자강에 힘을 보태는 의기투합 등 숨겨진 부분들도 함께 들려줘 광주의 근현대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밖에 귀한 사료로 특별한 날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완성한 '합벽도'를 소개하고, 그 의미와 용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양각색 한지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9월8일까지

'한지'를 이용해 작업한 따뜻한 감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관장 김왕식)이 주최하는 '각양각색'전이 오는 9월8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지 그림 'Hanji Art&Design' (한지드) 회원들을 초청해 마련한 기획으로 김승연·안현성·오강숙·유봉희·이상희·정유리·최경애·홍현주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뿐 아니라 독일 칼스루에, 벨기에 등 세계 각국에서 한지의 독특한 미감을 자랑하는 전시회를 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한지와 면사, 레이스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자신들만의 기법으로 개성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정유리 작가는 연잎에 깃든 비움의 자세를 담은 작품 '머금다 담다 비우다'를 선보이며 홍현주 작가는 우연과 필연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을 다양한 푸른빛깔의 한지를 돌돌 말고, 오리고 겹겹이 이어붙여 표현한 작품 '삶의 조용' 시리즈를 전시한다. 또 유봉희 작가는 과감한 화면구성과 강렬한 색채와 재봉틀로 표현한 드로잉 선 등이 인상적인 '나, 너, 우리'를 선보이며 이상희 작가는 빛을 은은하게 표현해주는 한지의 매력을 살려 작업한 '빛을 품다' 시리즈를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승연 작 '숲을 바라보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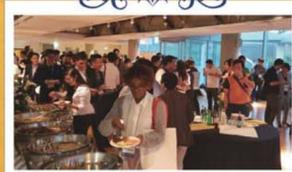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